**2차 웹페이지 기획서**

나인주

작성일: 2025.08.07.

**서비스명** : 챗봇을 이용한 여행지 추천 및 개인화 여행 노트 제공 서비스

**고객 분석**

* 여행이 가고 싶지만 어디로 떠날지는 결정하지 못한 사람, 혹은 어디가 가고 싶은건지 모르겠는 사람.
* 패키지 관광 같은 형태보다는 나만의 여행을 계획하여 떠나고 싶은 사람

**서비스 소개**

* 챗봇과 대화하여 사용자의 현재 상태나 취향 등을 통해 여행지를 추천.
* 추천 받은 여행지를 저장할 수 있고, 해당 여행지에 관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음.
* 여행지는 새 페이지 형태로 저장이 되며 해당 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형태
*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음.
* 사용자가 링크를 가져와 붙여넣을 경우, 카드 형태로 바꾸어 임베딩
  + 항공권 정보 링크 => 사이트명, 항공사명, 해당 항공권의 날짜와 시간, 가격
  + 숙박 정보 링크 => 사이트명, 숙소명, 주소, 가격
  + 구글맵 링크 => 장소명, 썸네일, 주소, 평점, 전화번호, 링크
  + 인스타그램 등의 링크 => 썸네일, 제목, 설명, 링크
  + 블로그 => 북마크 형태

**서비스 특징**

* 여행지를 추천 받고 흩어져 있는 여행 정보들을 모아서 저장할 수 있음.
* 저장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여행을 쉽게 구성할 수 있음
* 정보들은 일종의 노션 페이지 형태로 만들어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만들어준 노션 페이지를 본인의 노션 홈에 복사해 갈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 이용 방법**

* 웹페이지 형태로 사용자는 사이트 진입시 챗봇과 대화하며 서비스 진행할 수 있음. 해당 대화 내용은 링크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달됨.

**서비스 구현**

챗봇 (GPT API 이용)

저장은 노션 페이지 형태로 만들어서 본인 노션 홈에 복사할 수 있도록 (DB 필요하지 않도록)

**서비스 시나리오**

1. 이용자 사이트 진입
2. 챗봇과 대화 시작 (챗봇 이용 가이드 제공)
3. 챗봇은 대화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현재 상태나 희망사항, 취향 등을 토대로 여행지를 추천해줌
4. 이용자가 원하는 여행지가 나와 여행지를 선택
5. 여행 계획 작성을 추가로 진행할지 아닐지 물음.
6. 여행지 저장 까지만 할 경우 “여행지 저장”을 이용자가 선택하면 해당 여행지명의 노션 페이지를 만들어주고(템플릿) 이를 이용자의 노션에 붙여 넣을 수 있도록 제공하며 챗봇과의 대화는 요약 제공됨.(~한 대화를 통해 당신의 ~한 상태 ~한 취향을 반영하여 이 여행지를 골라줬다는 식의
7. 계획 작성도 원할 경우 사용자에 맞춰 여행 계획도 작성, 노션 페이지 내용에 포함 시켜서 제공
8. 제공된 노션 페이지를 내 노션 홈에 옮기는 법 안내
9. 해당 템플릿 사용법 안내
10. 사이트에서 목적 달성 완료로 이용자 이탈, 종료

**노션 템플릿**

**기능**

여행지 추천 => 챗봇 (GPT api)

여행지를 제목으로 노션 새 페이지 생성

항공권 정보 복붙 시 정보 추출해서 카드 혹은 북마크 형태로

* 특정 항공권 페이지 => 사이트명, 항공사명, 날짜&시간, 가격, 링크
* 항공권 검색 페이지 => 사이트명, 목적지(공항명), 날짜&시간, 최고-최저 가격이 적힌 토글 리스트 형태로, 토글 내리면 안에 사이트 임베드
* 임베딩 안될경우에는 북마크 형태로

숙박 정보 복붙 시 정보 추출해서 카드 혹은 북마크 형태로, 임베드는 높은 확률로 어려울 것, 임베드 안되면 지역, 날짜, 사이트명만 뽑아서 텍스트로 주고 하단에 링크 북마크 형태로

챗봇과 함께 사용자의 성향이나 니즈에 알맞는 여행 계획 작성

**제작 계획**

**디자인계획**

디자인 컨셉 : 최대한 미니멀 하되 저채도에 따뜻한 톤으로. 서비스 자체가 심플하고 진입점의 수도 적으므로 디자인 자체도 심플하게.

**마케팅 계획**

**경쟁사 분석**

**텍스트, 스크린샷, 디자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웹 페이지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yro.co.kr/?utm_source=chatgpt.com>

* 대부분 이미 유명한 명소들을 제안하고 일정을 짜주는 것에 포커싱
* 퍼스널한 여행지 추천 및 큐레이션과는 거리가 멈
* 현재 서비스들이 “퍼스널라이즈드 추천”이 아닌 **유명 관광지/전형적 일정**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유

**1. 데이터 수집의 한계**

여행지 추천을 하려면 **여행지 데이터셋**이 필요.

현재 서비스들은 주로 **관광청, 여행사,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대형 플랫폼의 DB**를 활용.

이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미 유명하고 검증된 명소** 위주.

반대로 “숨은 동네 카페, 골목길, 지역 주민만 아는 건축물” 같은 정보는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잘 안 들어감** → 자동 추천에서 배제됨.

🡺 인스타그램 데이터 수집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개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데이터셋을 만듬. 최근 여행의 트랜드도 반영됨.

**2. 사용자 취향 학습의 부족**

Netflix, Spotify처럼 “퍼스널라이즈드 추천”이 가능하려면,

사용자의 클릭/검색 이력

좋아요/싫어요 피드백

과거 여행 패턴

이런 **개인화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행은 **빈도수가 낮고 다양성은 너무 크다**는 특성이 있음.

→ 같은 사람이 영화는 매주 보지만 여행은 1년에 한두 번.

→ 데이터가 적으니 AI가 개인화 추천하기 어려움.

🡺 인스타그램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최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여행에 대한 생각이나 취향을 학습한 챗봇. 챗봇이 유저와 대화하며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대한 취향에 적합한 곳을 추천. 챗봇이 사용자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이를 통해 대화가 진행되며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 이 때 질문은 여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도 많이 포함함으로서 사용자의 취향이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3. 리스크 관리 문제**

서비스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추천하는 게 유리.

덜 알려진 로컬 스팟을 추천했다가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폐업/영업시간 변경” 같은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신뢰도에 타격**.

따라서 보수적으로 **항상 운영되는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안내하는 게 기본 전략.

**4. 일정 최적화 vs 취향 반영의 기술적 난이도**

현재 AI 여행 서비스는 주로 **일정 최적화 문제**(경로 최적화, 교통 동선 계산)에 강점.

하지만 취향 반영은 **정성적 데이터 처리**가 필요.

예: “조용한 예쁜 길”이라는 조건은 구글맵 좌표만으로는 판별 불가.

이미지·리뷰·SNS 데이터까지 결합해야 가능.

이런 정성적 취향 반영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라 상용 서비스에 잘 도입되지 못한 상황.

🡺 추천 시 실제 영업여부나 시간 확인을 권고하는 메시지 함께 제공 및 구글맵에서 바로 데이터 확인.

**5. 비즈니스 모델의 제약**

여행 플랫폼은 **제휴 광고·예약 수익**이 중요.

그래서 숙소·항공·티켓 예약이 가능한 **유명 관광지/도시 중심으로 추천**해야 수익화가 쉬움.

반대로 로컬 스팟 추천은 수익 구조가 불분명해서 뒷전이 됨.

🡺 포트폴리오 단계이므로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서비스 기획과 구현에 초점을 둠.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1. 그냥 GPT에 추천받는거랑 뭐가 다르냐

* GPT는 인스타그램 내부 게시물에 대한 데이터는 없음. GPT가 대답해주는 것들은 타인이 재가공한 데이터 기반. 실제 Raw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아님.

1. 노션을 써야만 쓸 수 있는거 아니냐

* 맞음. 그치만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고 국내에 이미 노션 사용률이 높아 이보다 나은 선택지 없음.

1. 질문이 너무 길어지면 사용자 이탈률이 올라가는거 아니냐

* 최근엔 한국인은 대부분 GPT 사용해봤으므로 어느정도 익숙해서 너무 많은 질문 수만 아니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임. UI도 일반적인 채팅 형태이므로 질문 자체가 사용자 이탈률을 유발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최근엔 이러한 형태의 생산형 ai 사용이 보편화 되어 서비스 결과물의 품질만 좋다면 이용률이나 중간 이탈률 문제는 낮을 것으로 보임.

**결론**

현재 서비스가 “퍼스널라이즈드 추천”보다 “유명 관광지 + 일정 최적화”에 머무는 이유는

**데이터 한계** (공식 DB는 유명 관광지 위주)

**개인화 데이터 부족** (여행은 빈도 낮음)

**리스크 관리** (안전하게 유명한 곳 추천)

**기술적 난이도** (정성적 취향 반영 어려움)

**수익 구조** (유명 관광지 중심이 수익화 유리)

따라서 기존과 다른 방향의 서비스를 기획.

초기 계획은 기존 서비스와 다른 관광보단 개인의 자유여행에 포커스를 둔 퍼스널 여행 추천 서비스. 인스타그램의 여행 관련 게시물을 크롤링해서 ai에 학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개개인에게 퍼스널한 여행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저장하여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페이지로 만드는 것, 여기서 후자는 DB가 필요함으로 노션 템플릿으로 대체함. 추가적으로 현재 서비스는 추천의 정확도 외에 예상 되는 소구점은 노션 템플릿이므로 템플릿을 좋은 퀄리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인스타그램이 가진 데이터를 이용하면 아주 퍼스널한 여행 추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스타그램이 사고 싶을만한 서비스를 기획•개발 한다는 컨셉.